◆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김은호 편집국장 : 조선근

기도하는 충현교회

이제 젊은이들이 일어섭니다

고등 · 대학 · 청년부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불씨들

'잠자는 교회를 깨우라.' 이는 현대 교회의 질병에 대한 가장 뼈아픈 질타이다. 겟세마네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 다 잠자던 중 시험에 들었다.

현대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이미 부흥에 대한 자기 만족에 은거하는 한국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다. 나라의 정세와 영적 현실이 몹시도 암울한 지금까지도 도무지 기도할 줄 모른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아직 희망이 있다. 한국 교회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러 모양의 중보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교회 고등 · 대학 · 청년1부에서 뜨거운 기도의 불씨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5부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로 엮어져가고 있다. 따라서 이 많은 기도의 불씨들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고등부(부장 임무천 장로, 지도 이국병 목사)는 그동안 수능시험을 앞두고 매일 오전 베다니홀에서 학부모기도회를 가져왔는데, 현재는 이 기도회를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꾸준히 모이고 있다. 이 기도회에서는 고등부와 학생들의 영적인 성장과 주일 5부예배 등을 제목으로 삼아 매주 100여명이 모여 힘있게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주부터는 매주 월, 수요일 이틀씩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새벽예배에 참석하게 되며, 예배 후에는 또한 자체적으로 모여 기도회를 가진 후,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학부(부장 서동석 장로, 지도 한근수 목사)는 그동안 여러 모양의 기도모임들을 꾸준히 가져왔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군입대한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사리 군기도회',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낙도기도회',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는 대학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선교를 위한 '새꿈이 기도회' 등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주 금요집회 후에는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전체기도회를 가져왔는데, 이 기도회에는 매번 15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어온 매주 목요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새벽기도운동'을 이번 주부터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회원들이 금요집회에 참석하여 전교회적으로 강조되는 찬송과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하고 준비 중이다. 또한 대학부 회원들을 20개 팀으로 나누어 매주 한 팀씩 기도원에서 진행되는 금요철야기도회에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부에서는 이러한 기도의 불꽃이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년도에는 교회적인 선교비전에 맞추어 연인원 300여명을 대상으로하는 단기선교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의 불꽃은 **청**년1부(부장 이갑재 장로, 지도 김필수 목사)에서도 동일하게 타오르고 있다. 현재 청년1부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매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전 회원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열심히 모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매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에는 100여명이 모여서 갖는 중보기도회가 있고, 매월 마지막주 금요집회 후에는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철야기도회가,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팀별로 돌아가면서 모이는 금요철야기도회가 있다. 특히, 주일 집회 전에 가지기 시작한 30분간의 교사기도회가 활성화되면서, 회장단에서는 40분간의 준비기도회를 가지기 시작하는 등 영적 교감의 분위기가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확대되고 있다. 청년1부 역시 거룩한 영적인 비전을 품고서 이 기도의 불길이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고, 청년들 스스로가 단기선교의 일꾼으로 나가는 일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을 믿고 있다.

특히, 고등부와 대학부, 청년1부에서는 새로 신설된 5부예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서 이를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데, 5부예배가 또 하나의 대예배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배 30분 전까지 모든 집회와 공부를 완료하고 예배 전 20분 동안은 본당에 모여 찬양으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

충현의 온 성도들은 고등 · 대학 · 청년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의 불길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영적 어둠의 허물이 태워지고 깨끗한 영혼, 깨끗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쏟아 기도에 동참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의 어두운 영적 현실과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기회로 삼아서, 참회와 결단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을 보냅시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 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 부서, 기관,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마감 : 1997년 12월7일(주일)까지
- 접수시간 :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 접수장소 :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구내전화 356)
- 접수종류 : 성탄카드, 격려편지, 성탄선물(다시마, 야채가루, 쇠고기수프, 냉면, 라면, 즉석미역국 또는 북어국, 멸치, 과자, 그밖에 가벼우면서도 상하지 않는 음식으로 한국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

※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가칠봉 점등식

북녘 땅도 예수님 탄생 알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1992년도부터 최전방 가칠봉에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 등화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 행사를 계속해 왔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험하고 외진 곳이어서, 대다수의 교회나 기관들에서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나, 마이크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북녘 땅에까지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다. 금번 점등식에는 김희수 목사와 전형준 목사, 그리고 호산나찬양대와 군전도회 회원 등 100여명의 성도들이 동참하여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린 후, 곧바로 점등행사를 가졌다. 이 등화는 내년도 1월말까지 유지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빛으로 전하게 된다.

아멘오케스트라 대원 계속 모집

내년 1월 첫주일부터 예배를 섬길 계획으로 대원을 모집하고 있는 아멘오케스트라는 현재 20여명의 신청자를 받아놓고 계속 준비 중에 있다. 연습은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연습시간은 매주일 4부예배 전후로 잡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의 연주를 즐거워하는 귀한 대원들이 선발될 수 있기 위해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이 요청된다.

금요집회

성도들의 특별찬양을 기다립니다

매주 금요집회때마다 평균 3팀씩 나와서 특별찬양을 부르는 성도들로 인해 금요찬양이 더욱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이 섬김을 위해 많은 헌신의 시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번주(12월 5일) 금요집회시에는 대학부중창, 장로중창, 트럼펫3중주 등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들의 찬양이 온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충현의 온 성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특별찬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군부대 방문예배

28일, 28사단으로

13교구에서는 28일에 제28사단에서 관할하는 최전방 철책선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며 전도집회를 가지고 돌아왔다. 철책선에 있는 초소 사병들을 초소당 2-3명씩 초청하여 위문하면서 예배를 드린 이번 방문에는 13교구 식구들과 지도 조철수 목사, 그리고 김필수 목사(전도위원회 지도)가 동행했다. 성도들은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군전도가 보다 실제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야겠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앗수르의 교만

(이사야 10:5-19)

이사야 선지자 당시 세상 나라의 대표라 할 수 있던 앗수르의 왕이 얼마나 교만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개인이나 가정과 단체, 그리고 나라가 교만하면 무서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앗수르 왕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7절)

만일 앗수르 왕이 자기는 하나님이 임시로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더라면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앗수르 왕을 쓰시는 동안에 그는 자신이 이룩한 업적들만 보고 자기야말로 하나님보다도 더욱 큰 존재라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2) 자신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앗수르 왕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의 정체도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잔뜩 교만하여져서 온갖 망령된 말을 하였습니다.

2. 앗수르 왕이 교만하여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1)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13절)

그의 작전지시대로 야전 사령관들이 따르기만 하면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앗수르 왕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의 지혜자이고 또한 모든 신보다도 뛰어난 지혜자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2) 자기의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8절)라고 했습니다. 자기 수하의 장군 한 사람은 다른 나라의 왕과 같으니 자기의 힘을 알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9절)라고 했습니다. 아르밧은 주전 740년에 앗수르에 항복했습니다. 갈로는 2년 후인 주전 738년에 점령당했습니다. 다메섹은 다시 6년 후인 주전 732년에 정복당했습니다. 사마리아는 10년 후인 주전 722년에 정복당했습니다. 또 하맛은 다시 2년 후인 주전 720년에 점령당했습니다. 갈그미스는 3년 더 있다가 주전 717년에 정복당했습니다. 앗수르의 강대한 힘은 23년 동안에 여섯 나라를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니 앗수르 왕은 자신의 힘을 자랑할 만도 합니다.

(3)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였습니다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양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버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도다"(14절)

그가 많은 재산을 마치 들짐승이 새 둥지를 털듯이 자기 마음대로 모았으나 감히 항의하는 말을 못들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4) 자신은 신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10, 11절)

그는 자신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쳐서 정복하였고 각 나라의 신상도 모조리 두들겨 부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부셨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때려 부수겠다면서 교만을 부렸습니다.

3. 교만한 앗수르 왕을 무엇과 같다고 하십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15절)

하나님은 앗수르 왕이 도끼와 톱과 막대기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이 교만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의 왕과 방백들을 잠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간사한 백성을 정신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앗수르를 들어 몽둥이로 썼고, 잘났다고 뽐내는 질려와 가시나무같은 자들을 자를 때도 앗수르를 들어 도끼로 썼고, 우거진 삼림처럼 큰 나무숲을 자를 때에도 앗수르를 톱으로 쓴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것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몽둥이나 도끼나 톱과 같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더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못쓰겠다고 버린 것이라도 가장 요긴하게 쓰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큰 떡집에서 한 마차 실어간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하여 세계가 놀랄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쓰시는 동안에 '나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어'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지 않고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때는 별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쓰시는 동안에 '나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어'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지 않고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때는 별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4. 교만한 앗수르 왕을 어떻게 징계하겠다고 선언하십니까

(1) 흉년을 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괴하게 하시며 …"(16절)

극도로 교만해진 앗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흉년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저수지를 아무리 많이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가뭄을 보내시면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불로 천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16절)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듯이 천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보내면 수많은 사람이 일시에 죽는데 가시나무도 타고 질려도 타고 삼림도 다 타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나무가 얼마 안되어서 어린 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로 황폐하게 됩니다(17-19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에는 불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살기가 좋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보다 죄악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 전쟁 준비를 이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가 일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을 향하여 가까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금년이 심판대 앞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경성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몽둥이가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께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망령된 생각은 하지 맙시다. 내가 잘나서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잘 입었으면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교만하지 맙시다.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힘이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돈이 많다'라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흉년을 보내시고 불로써 모든 것을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것 없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심판의 벌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PROMISE OF RESTORATION

(Ezekiel 11:14-21)

Ever since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Adam and Eve, human beings have experienced separation from God. Through Abraham, God called and blessed the Israelites as His people to unfold His ultimate plan of salvation. His purpose is to bring all human beings whose hearts accept Him and reject sin back into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 Jesus this relationship is established as we become His people and He becomes our God.

When Israel rejected Jesus Christ, they lost their favored position before God and the gospel was then preached also to Gentiles. It is because of Israel's partial and temporary hardened hearts that we are able to receive God's grace. "From the standpoint of the gospel they are enemies for your sake, but from the standpoint of God's choice they are beloved for the sake of the fathers; for the gifts and the calling of God are irrevocable" (Rom. 11:28-29).

When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comes and the Lord returns, God's irrevocable promise of restoration to the Israelites will be fulfilled. What is His promise? Today's message reveals the answer and calls upon us to rid ourselves of pride, reexamine our hearts, repent of our sins, reach out to Jesus, and rejoice in the awesome gift of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God directly spoke these words to Ezekiel, who in turn prophesied and recorded them (they are reverberated in Ezekiel 36:24-28):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Son of man, your brothers, your relatives, your fellow exiles and the whole house of Israel, all of them, are those to whom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have said, 'Go far from the LORD; this land has been given us as a possession.' (vss. 14-15)

The sneer of the remnants in Jerusalem, against the exiles of Israel and Judah, reflected their belief that God's power was limited to His land. They believed that they were blessed and everyone else was cursed. More importantly, their way of thinking displayed the message that only those who lived in Jerusalem could be close to God and therefore receive His blessings. God clearly contradicts this pretentious attitude: "Therefore say, 'Thus says the Lord God, "Though I had removed them far away among the nations and though I had scattered them among the countries, yet I was a sanctuary for them a little while in the countries where they had gone."' (vs. 16)

Although God's punishment against Judah and Israel caused them to be displaced from Jerusalem, His mercy still extended to them. God hears the cries of His people! He feels their repentance and comforts them no matter where they are. He reveals that the Israelites outside of Jerusalem are still His people; which makes the remnants of Jerusalem's actions and beliefs quite sinful.

This passage should remind us of the compassion we need for those experiencing God's discipline. For we all, at various times in our Christian lives, receive His correction! God's loving discipline enables us to see our wrong doings and repent. It provides us with the opportunity to grow and becomes closer to God.

We must keep in mind that it is only by the grace of God that we ourselves receive His mercy. Because God's mercy extends to all those in Christ, it is important that we reach out to others with the Gospel message; so that they too may accept and receive His unending mercy. If we, like the remnants of Jerusalem, limit God's power to our church or our own way of thinking; we too will be living in contradiction to the Word of God.

God's promise of restoration to the Israelites is twofold. The first part regards their physical location: "Therefore say, 'Thus says the Lord God, "I shall gather you from the peoples and assemble you out of the countries among which you have been scattered, and I shall give you the land of Israel."' (vs. 17) God promises all the Israelites (Judah and Israel) that He will gather, assemble, and give them Jerusalem. God's power in restoring all the Israelites to the promised land is miraculous. What's even more miraculous is God's provision for us in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회복의 약속

(에스겔 11:14-21)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관계는 형성이 되고 우리들은 주의 백성이 되며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특별한 위치를 상실하였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굳어진 까닭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8-29).

이방인의 때가 차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변치 않는 회복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이에 대한 답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교만을 제거할 것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점검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선물을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직접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예언하고 기록하였습니다(그 말씀들은 에스겔 36:24-28을 통하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14-15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 거하는 동족들을 보며 비웃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오직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가깝게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난 체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반박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16절).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하였지만, 주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그들에게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회개함을 느끼시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행동과 믿음이 아주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으로 사는 동안에, 각각 다른 때에 주의 징계하심을 받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여 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하여 줍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의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의 끊임없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교회 또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만 제한시킨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그들의 장소적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17절).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권능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

Christ,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John 14:2).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God will restore us to our eternal home in heaven.

Upon their return to Jerusalem, the Israelites will have to clean and straighten-up their new home: "When they come there, they will remove all its detestable things and all its abominations from it" (vs. 18). We already saw that the remnants of Jerusalem were sinful in their actions and beliefs towards their fellow exiles, unfortunately they are also sinful in their worship towards God. They persist in keeping idolatrous and sinful objects in God's holy land. The repentant Israelites will remove all such articles and make Jerusalem pure. The same practice is also expected of us. When we accept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we too have to make sure that our homes are clean and clear of all detestable things that are abominations to God. It is our duty as Christians to keep a proper household that is pleasing to God.

The second part of God's promise of restoration to the Israelites is the most amazing part! Not only does he restore their homeland but He also restores their hearts. The heart represents the total response of a person to God. Hardness of heart thus describes a negative condition in which the person ignores, spurns, or rejects the gracious offer of God to be a part of his or her life. Soft hearts belong to those who accept, repent, follow, obey, and worship Jesus Christ. Israel's sin is so deeply etched into their hearts that God must perform heart surgery: "And I shall give them one heart, and put a new spirit within them. And I shall take the heart of stone out of their flesh and give them a heart of flesh" (vs. 19). All the suffering exiles of Israel and Judah will receive freedom through Christ,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2 Cor. 3:17). First there is the giving of unity, then the addition of a new spirit, and finally the removal of stone with the replacement of flesh. This is how God performs surgery of the heart; an operation medical science will never be able to duplicate! For it is within the heart that God alone works; hence the human heart may be tender and soft or as hard as stone.

According to the New Testament, the coming of Jesus ushered in the era of this new covenant and Jesus Himself is its mediator. "Therefor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 Cor. 5:17). Ultimately, the hardness of the human heart can only be repaired by the grace of God. Only Jesus can restore us by taking away our heart of stone and giving us a heart of flesh.

God's covenant with Israel displays his unending love and faithfulness. His heart desires: "that they may walk in My statues and keep My ordinances and do them. Then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shall be their God" (vs. 20). Essentially the concept of the people of God can be summed up in the covenantal phrase: "Then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shall be their God"! God wants to bring all His people into fellowship with Him. He makes us and prepares us for relationship with Him. All this He does for us in Christ. Our job is to accept Christ and place our faith in Him; so that we can walk in His will. Without Jesus, no one is able to walk the pathway that leads to heaven! "But as for those whose hearts go after their detestable things and abominations, I shall bring their conduct down on their heads, declares the LORD God" (vs. 21).

Anyone, and that includes the Israelites, who desires ungodly things will suffer from the wrath of God, "If any man destroys the temple of God, God will destroy him, for the temple of God is holy, and that is what you are" (1 Cor. 3:17). Our new hearts are designed to operate only in His realm. If we use our God given gift against God, God will indeed go against us.

The emphasis on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the need to repent is emphasized further on in Ezekiel, "Therefore I will judge you, O house of Israel, each according to his conduct," declares the Lord God. "Repent and turn away from all your transgressions, so that iniquity may not become a stumbling block to you. Cast away from you all your transgressions which you have committed and make yourselves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For why will you die, O house of Israel?" "For I hav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anyone who dies," declares the Lord God. "Therefore, repent and live"" (Eze'k. 18:30-32).

Repentance is an all important factor to living a life for God. In Christ it brings escape from His judgment. Just as the consequences of sin bring death; the consequences of repentance bring life!

God's promise of restoration for the Jewish nation is different than His plan of salvation for us. We are to come to Jesus; whereas the chosen Jews will receive Him through His coming to them. It's true that some Jews will receive Him prior to Christ's second coming but most will need to await the day of Tribulation. What's important is that we take this gracious opportunity of restoration time and become restored and be His instrument for restoring others. Everyone who desires eternal life must repent, accept and believe in Jesus Christ, and humbly follow and obey His directions.

Let us individually and as a church repent and reach out to Jesus. If we have true faith in Him, our hearts will be soft, our church will be of one heart and the Holy Spirit will pour out God's blessings upon us. We can show the world, most especially the Jewish nation, what it is like to live in Christ as a restored human being!

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새로운 처소를 정결케 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18절). 우리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동족들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악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행위에 대하여서 또한 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우상적이며 죄악된 물건들을 여전히 두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물건들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행위가 요구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도 우리의 집이 깨끗하며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모든 미운 물건들을 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온 집안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두번째 부분은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고국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며 거부하는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따르며,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속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여야만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19절).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쫓겨나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 첫째로 거기에는 일치함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영이 주어지며 마지막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수술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현대 의술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마음 속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섬세하고 부드럽든지 돌같이 딱딱하든지 한 것입니다.

신약에 의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가 되시는 이러한 새 언약의 시대를 시작케 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궁극적으로, 굳어진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써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은 주의 끊임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20절)고 원하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준비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는 일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21절).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경건치 않은 것들을 소원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7). 우리들의 새로운 마음은 오직 주님의 영역 안에서만 작동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대적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강조점과 회개의 필요성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겔 18:30-32).

회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는 주의 심판을 피하게끔 해줍니다. 죄의 결과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듯이 회개의 결과들은 우리를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나라를 위하여 하신 회복의 약속은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현대판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하듯이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를 영접할 것에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환난의 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회복의 때를 기회로 삼아 회복이 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는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며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며, 우리의 교회는 한 마음이 될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게, 특별히 유대나라에게, 회복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아멘.

❀ 창인원을 다녀와서 ❀

우리 하나님은

이 선 경
(사랑부 교사)

10월 24일 10시 집합!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설악산으로 출발했다. 목적지는 설악산이 아니라 양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양평에 있는 창인원을 찾아가는 길이다.

밤이라 그런지 사방은 조용하기만 하고 가로등만이 우리를 지켜 주고 있었다. 밤길을 달려 설악산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다. 날은 아직 어두웠지만 가을 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설레기만 하였다. 설악산에 벌써 여러 번 왔지만 산은 올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반겼다.

나는 설악산을 오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산이지만 올 적마다 또 다른 감회를 안겨 주니 말이다. 시절에 따라 산에게 다른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솜씨에 나는 감탄했다.

산에서 내려와 점심을 먹은 후에 양평에 있는 창인원을 방문하였다. 창인원 역시 우리 사랑부처럼 지체장애아와 정신박약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사랑부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이곳을 늘 방문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사랑부 천사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창인원에 있는 천사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나무뿌리를 잘라서 그것에 사포질을 해서 장식품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참기름을 짜는 일 등을 했다. 그들은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밝은 미소를 머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의 교제 시간에 많은 것을 느꼈다. 먼저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들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가 그칠 줄 모르는 것을 보고 건강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늘 불만이었던 내 생활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어느덧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교제 시간이 짧은 것이 아쉬웠다. 그들의 따뜻한 전송을 받으면서 돌아오는 차에 올랐다.

이제 풍요의 계절 가을도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올 겨울은 다른 해보다도 춥다는데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주변에 소외당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사랑부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이곳을 방문하여 사랑부 천사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

◘ 이집트 및 케냐 선교지 답사 기행 – 3 ◘

영적 흑암의 땅에 환히 빛나는 복음의 빛

이 승 림
(목사, 선교위원회 · 영어예배부 지도)

맛사이 부족들

케냐의 북부지역인 투루카나 부족들을 방문한 이후 우리는 케냐 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맛사이 부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의 남방지역부터 국경을 지나 남부 탄자니아에 걸쳐 유목민으로 이주하며 살고 있는 맛사이 부족들은 케냐의 50여개 족속 중 매우 특이한 족속이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의 숫자로 부를 평가하던 고대 문화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유목민 집단이다. 그들은 용맹스런 독립심과 특히 길고 예리한 사냥용 창 같은 무기를 잘 다루는 기술로 유명하다. 그러나 다른 많은 유목민들처럼 이들도 한 곳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들은 케냐에서 맛사이 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두 분의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첫번째 방문한 곳은 감리교 임마누엘교회에서 파송받은 안찬호 선교사의 선교지였고 두번째는 충현교회 평신도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의 사역지였다.

안찬호 선교사

안찬호 선교사는 1997년 4월 13일 충현교회에서 주일 찬양예배시 설교하였기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의 간증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

맛사이 부족들은 워낙 호전적이기 때문에 이제껏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직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안찬호 선교사는 그들에게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주의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오직 살아 계신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하셨고 단지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고백하는 안찬호 선교사는 맛사이 부족에게 들어갈 때만 해도 언어적으로나 맛사이 부족에 대하여도 전혀 무지한 상태로 들어갔었다.

맛사이 부족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며
한때는 관광객들이 타고 다니던 버스까지
불태울 정도로 호전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들의 심성과 문화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7년 전 그가 현지인 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맛사이 부족들은 자기들이 잡은 사자의 머리를 모자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모든 현대의 문명을 거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가 현지에 들어가기 몇 달 전에는 유럽의 관광객들이 현지에 들어가다가 맛사이 부족들에게 잡혀서 거의 죽을 뻔하였고 그들이 타던 버스는 불태워버려서 지금도 그 장소에는 앙상한 차의 뼈대만 남아 있었다. 지금은 교회의 중직이 되어 있는 추장이 그를 죽이려고도 하였고 나무에 메어 달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죽을 고비를 넘겼고 현지인들의 신뢰를 얻어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열심 있는 선교의 열매로 현재는 8개의 교회가 이미 개척되었고 3개의 학교들과 병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12명의 현지인 목회자 후보생들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특이한 사항은 그의 선교전략이다. 그는 본부 교회를 설립한 이후 동서남북으로 반경 25km 지역에 네 곳의 교회들을 세우고 지금은 반경 50km 지역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본부 교회는 파송교회인 잠실의 임마누엘 교회의 전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건축하였지만 7개의 지교회들은 본부 교회와 다른 지교회들의 협력을 통하여 한 군데씩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 재정적으로 독립해 나가는 모범적인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수요일 낮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이제껏 조상 대대로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심성과 문화를 변화시켰고 그들의 생활 깊숙이 변화를 일으켜 오고 있다. 호전적이던 사람들이 양같이 온순하여졌고, 가뭄이 심해지면 늙은 부모와 병든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굶어죽도록 집에 남겨 두고 몇 달씩 소와 양떼를 이끌고 떠났다가 오는 그들이 이제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는 1,500명의 원주민들에게 주일 성수, 십일조를 강조하며 하나님 섬기는 도를 가르치고 있다. 영적인 부흥과 아울러 초등학교 교육, 병원사역등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고 있다. 우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의 사역지로 향하였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취재수첩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위한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겨울철 생활용품도 수집

선교위원회가 금년 초부터 실시해 온 외국인 근로자 사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복음화하고 이들이 한국 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몽골, 인도, 태국 등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매주일 2부예배를 드린 후 선교관 301호에서 모여 집회를 갖고 있다. 이 집회는 찬양과 율동, 설교, 성경학교 및 한글학교, 식탁의 교제순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전도회와 협력하여 의료사역과 미용사역을 실시하며, 주중에는 이들을 심방하여 이들의 신앙생활을 도와 주고 있다.

이런 사역들을 보다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위원회에서는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고 있다. 식탁의 교제를 위하여 매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에서 봉사할 분과, 성경학교와 한글교육을 위하여 영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인도어, 태국어 사용이 가능한 분, 주중에 한번씩 이들을 심방할 수 있는 분, 2부예배 시작 시간에 맞춰 성남, 부천 방면에서 이들을 데려오고, 오후 2시에 이들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

한편 이들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전제품(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과 그릇도 수집하고 있다. 수집장소는 선교위원회 사무실(선교관 406호)이다.

충현복지관 추수감사절, 기쁨의 잔치

복지관에서는 11월 18일(화)에 추수감사절 기쁨의 잔치 행사를 진행하였다. 충현교회를 통해 정신지체인을 위한 복지관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복지관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분들을 모시고 기쁨의 잔치를 나누었다. 1부예배에서는 정갑신 목사가 설교하고 직원들이 특별찬양을 하였다. 2부순서에서는 자원봉사자, 인근 지역 주민, 복지관 이용자 부모님을 모시고 조기교육과 아동들과 직업재활과 훈련생들이 그동안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과 율동, 드라마, 성시 낭독 등을 선보였다. 조기교육과 아동들과 직업재활과 훈련생들의 모습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모든 충현복지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하고 의미있는 자리였다.

고등부 모임 시간 일부 조정 분반공부는 12시 30분부터

12월 7일(다음 주일)부터 고등부 주일 모임 시간이 일부 조정된다. 고등부 교사들의 준비 기도회가 오전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본당 다락방 3층에서, 5부예배 후에 가지던 분반공부가 12시 30분부터 1시 20분까지 각 분반공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전체 집회와 5부예배는 종전과 같이 진행되어 집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갈릴리홀에서 모이고, 그후 대학, 청년부와 함께 5부예배를 드리게 된다.

사진 찍으세요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을 사람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 교구에 관계 없이 아직까지 사진을 찍지 않으신 제직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손길들

지난 11월 23일에 있었던 성찬식 전날, 토요일 오전 10시, 본당 뒷방에 위치한 성찬준비실에서는 성례부에 속한 장로님들과 50여분의 권사님들, 그리고 몇 분의 교역자님들이 모여 '성찬준비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는 약 4시간에 걸쳐 온 정성을 다해 성찬을 준비했다. 성찬에 필요한 포도즙은 18.5리터짜리 큰 생수통 7개 분량이고, 떡은 거의 한 가마 분량에 달했다. 권사님들의 정성스런 손길로 준비되는 성찬의 떡과 잔이 성스럽고 아름답다.

❀ 외국인 근로자 초청 행사를 마치고 ❀

선한 사마리아인을 꿈꾸며

이 정 협
(영어교육부)

특송하는 필리핀 근로자들

두려움과 가슴 벅참으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행사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었다. 처음 행사를 시작할 때의 무모함과 성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침착함과 여유가 생겼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궁구하면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행사였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내내 생각하게 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들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계획된 인원을 동원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처음 두 해와는 달리 예상을 훨씬 초과한 인원이 참석하였다. 이런 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선교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사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헐벗고 주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닌가 한다.

교회의 조직적인 지원과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내내 마음 든든한 원군이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눠 줄 물품들을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예년에 비해 훨씬 좋은 물건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실업인전도회의 후원으로 이들에게 선물할 내의를 준비할 수 있었다. 나눠 줄 물건들을 정리하고 행사장을 장식하는 손길들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고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눈길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맛깔스럽게 차려진 한 끼 식사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얼굴에는 감사가 넘쳤고 의료전도회의 회원들과 진료를 받는 이들 사이에는 믿음이 싹터갔다.

선교위원회의 외국인 근로자 사역팀과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 초청 행사가 지속적인 사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일회적인 행사로 그쳤던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 행사가 계속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충현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열매맺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또한 늦은 밤까지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심방하고 초청장을 나눠 주신 교사들의 수고는 더없이 소중하였다.

이런 공동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

직원모집

❁ 교회 직원

1. 자격
세례를 받은 자로 PC 사용이 가능한 자

1) 경리직 및 방송실 직원
① 경리직
• 여, 23세 미만 — 사무국 근무
• 여, 기혼자 가능 — 충현기도원 (경기도 광주군 소재) 근무
② 방송실 직원
• 남, 30세 전후 경력자 우대
③ 문의 : 충현교회 사무국 (552-8200 교환 402)

2) 유아원 교사직
① 여, 30세 이하,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유경험자 환영)
② 문의 : 충현유아원(554-7054)

2.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 충현복지관 교사

1. 자격
1) 특수교사(2명)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예정자)
2) 체육교사(1명)
• 체육 전공자(졸업예정자)

2.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자필이력서, 자필자기소개서, 전학년 성적증명서—접수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2) 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접수 마감 : 97년 12월 12일

4. 문의 : 충현복지관(564-4885)